

2014년에 통일위업실현에서 큰걸음을

분렬,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이 커다란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어언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간의 한생과 맞먹는 이 지나간 나날 우리 겨레는 전쟁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었고 근 70년세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부모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부림쳐왔다. 분렬은 우리 겨레모두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는 상처만을 남기었으며 이무 헤아릴 수 없는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분렬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끝장내는것은 이제 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다.

북과 남사이의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 리념의 차이가 존재하고 군사적긴장과 대결의 팽팽한 분위기만 떠도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겨레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를 따라 나아갈 때에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아

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거족적인 자주통일대행진을 벌려온 지난 6.15통일시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는 대결과 불신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여러 형태의 북남대화들은 지난 시기처럼 소모적인 논쟁의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의있는 대화로 발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방면에 걸쳐 협력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불신과 대결의 감정이 해소되어갔다.

당국뿐만아니라 민간단체들 사이의 래왕과 교류의 길이 넓어지는 속에 중요한 계기들마다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해내외 각계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련대연합이 강화되었다. 군사분야에서도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이 중지되고 원한의 군사분계선철조망과 지뢰들을 걷어내고 철도와 도로가 다시 련결되는 등 이전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

었던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6.15의 기치따라 활력있는 발전의 길을 걸어온 북남관계는 10.4선언의 채택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담은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변명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닦고 자주통일위업의 승리에 대한 우리 민족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후 펼쳐진 6.15통일시대는 북남공동선언들이 사상과 리념이 서로 다른 북과 남의 우리 민족에게 공감될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며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열려진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근 200만명의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에서,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에서 북의 인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밝아오는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평양과 서울, 백

두산과 제주도, 금강산과 부산 등 온 삼천리강토가 겨레의 드높은 통일의지를 시위하는 감격과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이처럼 대화와 협력, 래왕과 교류의 넓은 길을 열어줌으로써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활짝 열어놓았다.

남조선에서 대결과 분렬만을 추구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북남관계와 6.15통일시대가 진통을 겪고 있는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말악적인 책동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향한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수 없다. 불의는 멸망하고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며 그것은 지나온 통일운동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지금 내외분렬주의 세력은 우리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지만 그 어떤 세력도, 그 무슨 힘도 력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세울수

는 없다.

새해 2014년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통일에국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심장에 조선민족의 피가 뛰고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 살건, 무슨 일을 하건 오직 통일만을 생각하고 통일위업실현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정신육체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서버리며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민족사적위업성취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치면 밝아온 2014년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서 큰걸음을 내짚은 뜻깊은 해로 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통 일 운 동 을 더 욱 힘 차 게

새해를 맞으니 분렬의 년륜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온 겨레가 단합하고 노력하여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른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지도 어언 69년, 분렬의 비극사를 더이상 지속시킬수는 없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

자신이다. 누구도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선사하지 않는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통일운동에 떨쳐나설 때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할수 있다.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과 분렬책동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겨레의 통일의지는 꺾을수 없고 우리 민족은 기필코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달성할것이다. 그러자면 2014년을 통일운동의 큰 성과로 빛내야 한다. 기울인 땀과 노력이 없이 소중한 열

매를 바랄수 없다.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안의 전체 일군들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전쟁공조책동을 짓부시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오는데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리영일

갑오년의 피의 교훈을 새겨보며

새해를 맞고 보니 120년전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에 열기했던 농민군의 합성이 지금도 들려오는듯싶다. 민족사의 한페이지에 갑오농민전쟁으로 새겨진 그 나날들에 이 땅의 무수한 농민들은 《보국안민》을 웨치며 정의의 창검을 비껴들었지만 《거류민보호》라는 미명하에 이 땅에 상륙한 일본침략군대에 의해 봉기는 실패하고 이 나라의 산과 들은 겨레의 붉은 피로 물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민족의 력사를 뒤돌아보면 외세는 집요하게 우리 민족 문제에 간섭하고 침략의 검은 손길도 뻗쳐왔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오랜 역사를 강요하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초래될것은 민족의 불행과 재난뿐이다. 이것은 민족사의 피에 젖은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지난 한해에도 외세의존에 매달려 동족압살을 위한 《공조수립》책동에만 광분하여왔다. 결과 이 땅에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국면도 날려버리고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수행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자면 외세와 짝꿍이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제 민족이 우선이고 바로 민족중시의 바른 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도 곧바로 전진할수 있다. 우리 천도교청우당과 이 땅의 천도교인들도 남녘의 천도교인들과 뜻과 힘을 합쳐 새해에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알심있게, 활력있게 벌려나갔겠다. 통일을 일일천추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동귀일체하여 내외분렬주의세력에게 강타를 안기면서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애국운동에 모두가 힘차게 떨쳐나서겠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 석 현

대 결 의 계 도 에서 벗어나야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중대제안을 몇차례나 남측에 제기하였고 모처럼 마련된 대화를 어떻게 하나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양보도 하고 인내력도 발휘하였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되고 진행되어가던 북남대화가 중단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것

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변하지 않은 동족대결정책 때문이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더우기 상대방을 해칠 공중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남측은 말로는

동안 광란적인 《종북세력척결》소동을 벌려놓아 대결분위기를 한껏 고취해왔다. 이처럼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동족을 《적》으로 삼고 대화상대방에 대한 앙심을 품고있는데 북남관계가 제대로 되어나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북남관계가 악화되고 대결이 심화될수록 민족내부의

